

/지역 단신/

신안지역 양파 수급안정 교육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와 하의농협은 최근 하의 면사무소에서 올해 양파계약재배농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파수급 안정사업교육을 실시했다.

신안지역은 올해 총 213농가 725.6ha에 양파를 재배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촌진흥청 이태 박사를 초빙, 양파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계약농가 소득안정 및 산지농협의 마케팅 역량강화 확대 등 신안지역 양파 수급안정사업에 대해 교육했다. 최원희 지부장은 “목포·신안 관내 8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채소수급 안정사업의 내실화와 미계약 농가 및 위약농가의 감소를 위해서 상·하반기 각 2회씩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보성밀알회 ‘밀알가족 큰 잔치’

밀알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밀알가족 큰 잔치가 보성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사진)



사단법인 밀알중앙회(총재 나훈)가 주최하고 보성밀알회(회장 최관호)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전남북·광주 12개 지구 밀알가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행진과 체육행사, 장기자랑 등 밀알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큰잔치로 진행했다. 밀알 중앙회 나훈 총재는 이날 행사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트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썩트면 열매를 맺는다는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사랑 실천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밀알인이 되자”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신안 풍력발전 건설 차질

주민들 “소음 등 피해 불구 협의 없이 강행” 기공식 행사장 막아... 郡당국도 잘못 인정

신안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신안군에 따르면 17일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현지에서 1단계 풍력발전소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이 “군 당국이 지역주민 설명회 등 사전협의 없이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 주민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이날 기공식 행사장 진입로 150m 구간에 경운기와 화물차 등을 세워 통행을 막고, 행사장 단상의 시설물을 뜯어내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 백산리 주민들은 마을앞에 풍력발전

기가 시설될 경우 인근 농경지와 조립지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땅값 하락 등의 직·간접 손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일호(37·백산리)씨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게 되면 경관훼손을 비롯해 소음공해와 그림자 등 불빛 공해등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사정이 이런 데도 군 당국과 시행사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관계자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배중기(61·백산리)씨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청회 한번없이 행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발

상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소원과 외양간 고치는 식의 탁상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주영찬 신안군수 직무대행은 “추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번 기공식과 관련,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풍력단지는 신안군이 동국산업(주)과 투자협약을 맺어 총 3천765억원을 들여 3단계에 걸쳐 183메가W급의 국내 최대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우선 1단계로 자은면 백산리 일원에 65억원을 들여 높이 69m, 날개직경 61.4m에 이르는 1메가W급 발전기 3기로 3메가W급의 실증 발전소를 오는 10월에 완공,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할 계획이다.

/신안=조원범기자 wncho@

고흥군 ‘취덩굴과의 전쟁’

7월까지 53개 산림지구 100만명 제거 작업

고흥군이 산림의 예물단지로 변한 취덩굴 제거 경진대회를 여는 등 취덩굴의 전장에 나섰다.

고흥군은 18일 “오는 7월까지 영남과 남양, 동강 등 관내 53개 지구 100여만평의 산림에서 대대적인 취덩굴 제거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취덩굴은 왕성한 번식력이다 주변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서 나무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광합성 작용을 차단, 고사시키는 등 ‘산속의 불가사리’로 불리고 있다.

또 제초제 등 약제사용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이 높아 뿌리 한마디만 살아있어도 다시 번식하는 등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는 약제처리와 함께 취덩굴 캐내기, 종자 채취, 제거지역 관리카드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21일부터 10일간 처음으로 취덩굴수거 경진대회를 연 뒤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전량 수매도 해줄 계획이다. 취덩굴은 kg당 600원 선에서 30여%를 사들인 뒤 취덩굴체제 공급, 건강식품으로 가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취덩굴은 숙취해소와 불면증,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푸에라린’ 성분이 함유돼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두륜산 녹차 채취

무료 체험장 운영

해남군이 두륜산 도립공원 녹차채취 무료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에 조성 되어있는 녹차밭 1만평을 다음 달 3일까지 무료로 개방, 녹차 채취와 녹차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 체험장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채취한 녹차를 직접 뒤어 녹차를 만드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개방한 이 체험장에 가족단위 방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400년전 강진서 7년간 역류 ‘하멜 후예’ 조상 발자취 찾아

400여년 전 강진 병영성에서 7년간 역류생활을 했던 네덜란드인 하멜의 후예들이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아 강진군을 방문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국제로타리클럽 네덜란드 1590지구 회원인 피터(64·의사)씨를 비롯한 네덜란드인 6명이 지난 15일 2박3일의 일정으로 강진군을 방문했다.

사회봉사자이자 K1선수이기도 한 페트리(34)씨는 “네덜란드와 풍경은 다르지만 사할과 초당에서 맞이한 새벽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인 하멜은 1653년 상선 스페르웨르호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도중 난파해 제주도에 표착, 강진 병영성 등에 배치돼 잡역에 종사하다가 14년만인 1666년에 일본으로 탈출, 귀국후 ‘하멜표류기’를 저술하여 한국의 지리·풍속 등을 유럽에 소개했다.

강진군은 2008년까지 하멜 전시관을 병영성내에 건립하고, ‘한골목’의 답정도 정비하는 등 서양 문화 흔적을 관광자원화하고 양국간 생활민속을 비교 전시해 역사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과 네덜란드 호르름시는 하멜 등 33명이 병영성에서 7년간 역류생활을 한 것을 계기로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하고 그동안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2006 여름 최대의 축제

BRAVIA